

수젠텍, 2022 대전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후 최대 6년간 20억 원 R&D 자금으로 지원받을 예정
- ▶ 초소형 저전력 정밀진단 플랫폼, '슈얼리 스마트 프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매진 중

<2022-11-18> 제외진단 선도기업 수젠텍(253840, 대표이사 손미진)은 '2022년 대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은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젠텍이 위치한 대전 지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수젠텍을 비롯한 바이오니아, 씨에이치씨랩, 휴비스 총 4개사가 선정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년도에 약 5천만원을 사전 기획 및 사업화 지원 비용으로 지원받고 24년도부터 최대 6년 간 20억원까지 R&D지원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중기부로부터 KOBACO '방송광고지원사업' 선정평가지 우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 등의 지원과 더불어, 대전광역시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된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은 수젠텍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과 같다"며 "6년 동안의 지원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전 지역혁신 기업들과 협업하는 등 지역 경제를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젠텍은 14일부터 메디카 2022에 참가해 시분해형광(TRF)기반의 현장진단 신제품 INCLIX F-100을 처음 선보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인 '슈얼리 스마트' 및 '슈얼리 스마트 프로'와 알러지와 자가면역 진단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면역스트립 자동화장비인 '에스블롯 쓰리 플러스(S-Blot 3 Plus)'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